

더 강해진 AI페퍼스, 구단 최다승 신기록



AI페퍼스 선수단이 지난 2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KOVO 제공)

‘디펜딩 챔프’ 현대건설 제압 이변... ‘시즌 6승’ 신고 뒤편 필수로 더 단단해진 팀워크 구축 “끝까지 간다”



여자프로배구 페퍼스타는 A 디펜딩 챔피언 ‘현대’를 제압하며 창단 이후 구단 최다승을 달성했다. AI페퍼스는 지난 2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세트 스코어 3-2(2

25-23 19-25 26-24 15-12)로 꺾고 6승째를 신고했다. AI페퍼스는 2021년 창단 후 지난 시즌(2021-2022: 3승 2패, 2022-2023: 5승 3패, 2023-2024: 5승 3패) 동안 시즌 최다승이 5승에 불과했다. 지난 14일 GS칼텍스를 잡고 구단 최다승 타이틀을 세운 이후 한국도로공사(2-3), IBK 기업은행(1-3), 정관장(2-3)을 상대로 3연패를 당한 AI페퍼스는

2위 현대건설을 잡고 6승1패(승점 19)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올 시즌 탄탄한 전력으로 무장한 AI페퍼스는 전반기 마지막 4경기 중 3경기만 승리하며 승부사슬을 끊지 못한 승부사로 변신, 후반기 기대감을 키웠다. 1세트를 접전 끝에 내준 AI페퍼스는 2세트 21-22에서 장위의 블로킹으로 동점을 만들고 이한비의 연속 득점을 앞세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AI페퍼스는 3세트를 쉽게 내주며 패색이 짙었지만 4세트에서 박정아와

테일러의 쌍포가 터지면서 듀스 접전 끝에 경기를 풀세트로 끌고 갔다. 분위기를 가져온 AI페퍼스는 5세트 승부처에서 장위의 블로킹과 박정아의 킥오픈으로 세트포인트를 만들며 기나긴 승부의 종지부를 찍었다. AI페퍼스는 박정아가 27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이한비 20득점, 테일러 12득점을 올렸다.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간 AI페퍼스는 내년 1월9일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박희중기자

“국민 전체가 슬픔”

KOVO,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 개최 취소

한국배구연맹(KOVO)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 1월4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기로 한 올스타전을 취소하기로 했다. 배구연맹은 30일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주 올스타전의 진행 여부에 대해 신중히 논의의 결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연맹은 “어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국민 전체가 슬픔에 빠진 국가에도 국민에게 축제 분위기로 진행돼야 하는 올

스타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벤트, 응원 등을 자제하며 차분히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하였지만 팬들과 다 같이 웃고 즐겨야 하는 올스타전은 그 의미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맹은 올스타전을 2-3주 연기해서 진행하는 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각 구단의 경기 일정 조정, 경기장 대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올해에는 아예 올스타전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김동화(왼쪽)와 강희수가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새 시즌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김동화·강희수 콜업

금호고 출신 듀오... 2025시즌 선수단 구성 신호탄

프로축구 광주FC가 2025시즌 본격적인 선수단 구성에 돌입한다. 광주는 30일 “U18 금호고 출신이자 올해 선문대를 대학 축구 4관왕으로 이끈 주역인 김동화(GK·21)와 강희수(MF·21) 듀오를 콜업했다”고 밝혔다. 대학 3학년인 김동화는 팀에 합류하게 된 두 선수는 올해 선문대가 대학 축구를 제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김동화는 대학 1학년 제1회 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골키퍼상 수상을 시작으로 제1회 한산대첩기 대학축구대회 골키퍼상 수상, 2024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골키퍼상 수상 등 개인상을 휩쓸며 명실상부한 대학 최고의 골키퍼로 군림했다. 2023년 제2회 덴소컵 한일정기전, 2024년 모리스 레볼로 국제친선대회 U21 대표 선발 등 연병별 대표팀에도 꾸준히 발탁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김동화는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뛰어난 위치 선정을 앞세워 선방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양발로 활용한 빌드업이 수준

급이며 넓은 진영을 커버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광주의 전술 활용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중앙 미드필더 강희수는 날렵한 체격으로 2선과 3선을 넘나드는 활동량과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패스 능력을 앞세워 선문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또한, 볼키퍼와 탈압박에서 장점을 보이며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강희수는 금호고 시절 미드필더 조합을 이뤘던 1년 후배 문민서, 안혁주와 다시 발을 맞추게 되며 ‘금호고 케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김동화는 “유스 시절 꿈을 키웠던 광주에서 프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골키퍼 선배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고 하루빨리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당찬 각오를 내비쳤다. 강희수는 “금호고 시절 문민서, 안혁주와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대된다. 신인답게 패기 있고 약삭같이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중기자

2024 KLPGA 기록, 기록들

박민지, 사상 최초 동일대회 4연패 안송이, 역대 최다출전신기록 이예원, 104개 홀연속 노보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27일 2024시즌 KLPGA 투어에서 쏟아진 다양한 기록을 갈무리하면서 2025시즌에 나올 새로운 기록을 소개했다. 박민지는 사상 최초 동일대회 4연패 기록을 세우며 골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전까지는 고(故) 구옥희, 강수연, 박세리, 김해림이 세운 3회 연속 우승 기록이 최고였다. 안송이도 굵직한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열린 S-OIL 챔피언십 2024에 출전해 생애 통산 300번째 대회에 도장을 찍으며 역대 최다 출전 신기록을 만들었다. 기존 기록은 흥남의 309회였다. 이예원은 지난 5월 치러진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라운드 16번 홀부터 2024 셉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2라운드 11번 홀까지 104개 홀 연속 노보기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8시즌 김자영이 기록한 99개 홀 연속 노보기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신기록이다. 노승희는 2024시즌 31개 대회에 모두 출전해 100라운드 돌파를 넘어 단일 시즌 최다라운드 기록을 새롭게 작성했다. 종전 기록은 2016시즌 박채윤과 정희원이 기록한 96라운드였다. /연합뉴스

황희찬, 시즌 2호골 터뜨린 뒤 묵념... “깊은 위로 전해”



황희찬이 30일 열린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황희찬 인스타그램 캡처)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리그 2호 골을 터뜨린 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했다. 황희찬은 30일 열린 토트넘과의 2024-2025 EPL 19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라얀 아이트누리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밀어준 패스를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눈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황희찬이 오른발 인사이드로 찬 슈

팅은 왼쪽으로 절묘하게 감기더니 오른쪽 골대를 맞고 들어갔다.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궤적이었다. 2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2호골을 쓴 황희찬은 그라운드에서 무릎으로 슬라이딩한 뒤 뒤따라온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이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더니 잠시 서서 묵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목숨을 잃은 179명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세리머니였다. 황희찬은 경기 뒤 소셜 미디어에

“경기 직전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울버햄프턴은 황희찬의 선제골을 앞세워 2-2로 비기고 3경기 연속 무패(1승 1무)를 이어갔다. 토트넘의 손흥민도 황희찬과 함께 선발 출전에 이날 경기는 ‘코리아 Derby’였다. 손흥민은 전반 43분 페널티킥을 실패해 아쉬움을 삼켰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장 후보들, 참사 애도 행렬에 동참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행렬에 동참했다. 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홍(69) 후보는 30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기홍 후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국가 애도 기간인 내년 1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대한탁구협회장을 역임한 유승민(42)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항공기 사고로 안타깝게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한순간에 너무나 많은 귀한 생명을 잃은 비

통한 사고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용주(63) 후보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하얀 국화가 새겨진 애도문을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낼 때 함께 전송했다. 또 6명의 후보에 이름을 올린 강태선

(75) 서울시체육회장과 오주영(39) 전 대한세탁타크로협회장,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도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내놨다. 강태선 후보는 이날 비리 척결 기자회견을 묵념으로 시작한 뒤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명했다. 강 후보는 국가 애도 기간인 내년 1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을 통해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겨울 패딩 200벌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울산 GK 조현우 ‘K리그1 연봉킹’

린가드,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

프로축구 울산 HD의 K리그1 3연패를 최후방에서 지켜내며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골키퍼 조현우(33)가 ‘2024시즌 연봉킹’에 등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발표한 ‘2024 K리그1 구단별 연봉 현황 발표’ 결과 조현우가 14억9천만원으로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우에 이어 김영권(울산·14억5천만원), 김진수(13억7천만원), 이승우(13억5천만원), 박진섭(11억7천만원·이상 전북 현대)이 뒤를 이었다. 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출전 수

당, 승리 수당, 공격포인트 수당 및 기타 옵션 등)을 더한 실질금액 기준이다. 수당에는 K리그, 코리아컵,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됐다.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는 K리그1 FC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로 18억2천만원을 받았다.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 연봉 1위였던 세지야(대구FC·17억3천만원)가 2위로 한 계단 내려선 가운데 무고사(15억4천만원), 제르소(14억4천만원·이상 인천 유나이티드), 일류첸코(서울·14억3천만원)가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